한국_Korea 생활속담

날짜 : 2025년 12월 14일 8:50 오후

타이틀	설명
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	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
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	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으로,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	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오히려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	누구나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
서당개 삼 년에 풍월 읊는다	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서울 김서방 찾기	넓은 서울에서 주소도 모르면서 사람을 찾는다는 뜻으로, 잘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찾아다니거나 막연한 일을 잘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하려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쇠귀에 경 읽기	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